

공기 통로.

합판 위에 이미지가 스며들게 그림을 그리고, 그것을 깎아내는 행위를 통해 회화의 환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공간을 드러냈다. 이 깎아내는 행위는 단순히 표면의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, 회화라는 것이 위치하고 점유하는 그 세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.

각목에 식물의 기공과 같이 혹은 땅 속 개미집과 같이 뚫린 '공기 통로'는 단순히 그려지고 깎여진 것을 넘어서, 회화의 물리적 구조와 그것이 놓인 공간의 흐름까지 감각하고자 하는 시도이다. 이 구멍은 단지 구조적 통풍을 위한 것, 단순히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, 회화의 환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사이에서 멈춰있던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열어둔 감각의 통로다.. 순환하는 공기는 그 안으로 스며들고 빠져나가며 흐름을 뒤섞고 연결한다. 이 안에서 감각은 흐르고, 머물고, 스며든다.

회화는 환영적이고 시각적이며 감각적인 층위와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층위 사이의 경계 그 자체를 점유하고 있다. 회화는 이미지와 물질, 표현과 구조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는 존재다. 그리고 그 모호한 지점, 그 진동하는 틈 속에서 회화는 작동한다. 그러므로 회화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하나의 표면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,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감각이 머물고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더함으로써,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회화 안팎을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.

공기는 환영과 구조 사이의 틈을 통과하고, 그 틈을 통해 회화 바깥의 감각이 스며들 수 있게하며, 회화가 단단히 닫힌 곳이 아니라 느슨하게 열려있는 것임이 드러난다. 구멍은 그 자체로 감각의 여지이며, 동시에 회화의 내부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(보이지만 보이지 않는) 통로이다.

‘회화가 단단하게 닫힌 세계가 아니라, 공기를 통해 스스로와 세계를 연결한다.’

이 구멍들은 시각적 요소나 기능적 장치로 머물지 않고, 회화의 호흡을 위한 통로이자, 관객의 감각이 진입할 수 있는 입구다. 이처럼 회화의 표면 아래로 뻗어 있는 공기의 흐름은, 회화가 자립적인 세계를 가진다는 것, 내부와 외부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는 감각을 가능하게 한다. 이로써 회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세계와 연결된 감각을 하는 유기체로 작동한다.

회화를 단지 결과물로 보는 대신, 우리와 호흡하는(할 수 있는) 것, 혹은 감각의 생태계로 확장시킨다. 깎아낸 자국, 구멍, 통로들은 모두 그 생태계의 일부이며, 개미집처럼 퍼져있는 공기통로는 생명성과 연결된 구체적 감각의 형태로 읽힐 수 있다. 회화는 더 이상 눈으로 감각하는 대상이 아니라, 공기를 통해 몸과 감각이 반응할 수 있게 작동한다.

그 앞에 선 관객은 더 이상 이미지를 단순히 보는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. 그들은 회화 주변을 감돌고 흐르는 공기, 미세한 틈을 통해 감각적으로 접촉하고,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 세계의 호흡을 함께 나눈다. 이것은 회화를 통해 열리는 섬세한 감각의 층위이며, 시각의 언어를 넘어서 회화라는 구조를 통해 감각과 존재가 만나는 방식을 실험하고 구성해보려는 시도이다. 그리고 이 시도는 회화를 다시 살게하고, 다시 느끼게하며, 다시 말하게 만든다.

2024.07